

CCIA 의 한국 저작권 위원회 설문조사¹에 대한 의견: 저작권과 AI

I.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AI 학습은 대량의 저작권 저작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자,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간에 저작권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법률 하에서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법률 하에서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과 학습 과정은 고도로 변형적인 공정 사용입니다. 표현 저작물을 입력하는 과정은 사실, 패턴, 트렌드와 같은 보호받지 않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복제나 표현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력된 데이터는 종종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되거나 임시적으로 복제되며, 이러한 과정은 대중이 볼 수 없고 소비할 수도 없으므로 시장에서 입력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대체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모델과 관련하여, 특정 데이터가 모델이 단어 간 의미와 상호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콘텐츠가 모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저작권 학자들은 미국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학습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입력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조항(17 U.S.C. § 107)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저작권법 제 35 조의 5 항과 유사합니다.² 이스라엘 법무부도 기계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정 사용 조항 하에서 허용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 저작권법 제 35 조의 5 항,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17 U.S.C. § 107³과 유사합니다. 미국에서는 AI 개발자를 상대로 수십 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AI 개발자가 공정 사용 주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작권 저작물을 허가 없이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관련 기관이나 결과물의 상업적 성격에 관계없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사용은 고도로 변형적이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AI 시스템은 대부분

¹ 설문조사 질문은 굵게 표시되었으며, CCIA 의 답변은 각 설문조사 질문 아래에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AI 설문조사 1-8 이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survey/list.do>

²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654875;%20;
<https://texaslawreview.org/fair-learning/;%20;>
<https://lawreview.law.ucdavis.edu/archives/53/2/copyright-and-progress-science-why-text-and-data-mining-lawful.>

³ <https://project-disco.org/intellectual-property/011823-israel-ministry-of-justice-issues-opinion-supporting-the-use-of-copyrighted-works-for-machine-learning/>

비침해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공정 사용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침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요청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AI 모델의 학습 및 배포에서 저작권 자료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명확한 선언은 환영받을 것이며, 이는 한국의 혁신가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추가적인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AI에 특화된 예외 규정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정 사용 조항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표로 하는 특정 조항을 모두 보유한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⁴

2) 공정 사용이 아닌 경우 저작권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이 질문은 위에 서술된 공정 사용의 적용에 따라 대부분 해결됩니다. 따라서 일부 AI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보상을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저작물을 AI 학습에 공정 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상이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는 특정한 가치가 있는 경우나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저작권과는 무관한 이유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AI 시스템이 출력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재현하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경우,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제공 방식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4) 비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어떤 종류의 비금전적 보상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 대규모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요구할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⁴ <https://project-disco.org/intellectual-property/021021-draft-singapore-copyright-bill-proposes-significant-innovations/>.

직접적인 자발적 라이선싱은 대부분의 창작 분야에서 실행 불가능하며, 특히 옵트인(opt-in)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방대한 양의 저작물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라이선싱 절차는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자료 중 상당 부분은 허가를 얻기 위한 식별 가능한 저작자가 없으며, 식별 가능한 저작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들과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작자가 반드시 권리 보유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를 식별하더라도 저작권을 라이선스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와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수적인 동의 접근 방식을 시행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원을 가진 AI 개발자만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종종 소송을 제기하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라이선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AI 개발자와 소규모 창작자가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더 낮은 품질과 덜 다양한 데이터셋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은 비율의 라이선스된 자료에 대한 허가 비용이 높아지면 덜 유능하고 잠재적으로 더 편향된 AI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의무화하면 열등한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 감소, 전반적인 혁신 저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AI 기업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는 robots.tx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옵트아웃(opt-out)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메커니즘은 robots.txt와 같이 기계가 읽을 수 있음과 동시에 산업 표준이어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I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저작권자는 AI 학습에 어떤 저작권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AI 학습 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 비밀이나 과도한 관리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AI 법률은 "범용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준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을 유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어야 합니다. 첫째, 학습을 위해 읽은 자료를 기록해야 할 의무는 개인에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러한 요구는

방대한 자료량을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니다. 셋째, 앞서 논의된 공정 사용의 적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AI 회사가 robots.txt 프로토콜과 같은 방법을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자료가 학습 목적으로 크롤링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입력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면, 어떤 저작물이 입력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저장 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2)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의무는 영업 비밀이나 기타 기밀 정보를 포함한 고도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학습 데이터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작권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애초에 이러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에게 공개하든 저작권자에게만 공개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4) "충분히 상세한 요약"이 포함해야 할 정보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습한 사이트의 링크, 저자와 저작물의 이름, "Common Crawl", "Books3"와 같은 데이터셋 정보)

III. AI 학습 저작물에 대한 사전 허가의 대안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AI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일부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저작물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이 허용되지만, 저작권자가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힐 경우(옵트아웃), 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1) 유럽 및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저작권 저작물의 사전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TDM 면제 규정). 이러한 TDM 면제 규정을 한국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및 반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도 EU, 일본,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된 것과 유사한 TDM 면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한국의 AI 개발자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DM 예외는 상업적, 비상업적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생태계의 많은 혁신이 상업적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예외 조항의 범위와 혁신 촉진 효과를 제한하지 않는 조건 없는 TDM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AI 개발자들은 이미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자료가 학습 목적으로 크롤링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bots.tx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옵트아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옵트아웃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권리 보유자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산업 표준 수단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보다 규범적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면제를 반대하지만, 보다 엄격한 조치는 기술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권리 보유자, AI 개발자,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답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사례를 보면, TDM 면제 규정에 비영리 및 연구 목적에만 허용하거나 저작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는 등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TDM 면제 규정을 도입한다면, 어떤 유형의 규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TDM 면제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4) 한국에서는 저작권자가 AI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옵트아웃)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작품의 사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명시적인 동의가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이 학습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저작권자는 효과적인 옵트아웃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저작권자는 콘텐츠의 유료화(paywalls)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는 널리 사용되는 robots.txt 배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특정 AI 봇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작품을 크롤링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opt-in) 체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AI 개발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입니다. 덜 일반적인 언어로 작성되거나 다양한 하위 문화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는 정리될 가능성이 훨씬 낮으며, 허가를 받을 적절한 단체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보유자를 식별하고 협상할 자원이 없는 중소기업(SME)은 AI 개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니다.

5)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저작물이 포함된 웹사이트에서 AI가 크롤링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법 (robots.txt, 로봇 배제 기술)

개발된 모든 표준은 권리 유보를 존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b) 저작권자가 AI가 특정 저작물로 학습한 후에 옵트아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언러닝”)

c) 학습 거부가 요청된 데이터를 이미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제외하는 방법

d) 기타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robots.txt 또는 로봇 배제 기술을 사용하여 AI가 저작권 저작물을 크롤링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검색 엔진 봇을 허용하면서 특정 AI 학습 봇을 제외하거나, 일부 사용은 허용하되 다른 사용은 금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회사는 최근에 검색 엔진 봇을 허용하면서도 AI 학습 봇을 제외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비학습(unlearn)”하도록 사후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은, 현재로서는 모델을 완전히 재학습하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 학습 자료로부터 도출된 추론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 애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영향이 별도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델을 재학습하는 데 막대한 비용(막대한 에너지 소비 포함)이 들기 때문에, 특정 학습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추론을 “비학습”하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더욱이, 모델의 새로운 버전은 일반적으로 기초부터 재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저작권자가 모델 1.0 출시 후에 “옵트아웃”(작품 제외)을 하더라도, 이미 출시된 모델 1.0 은 재학습이 불가능하나 모델 2.0에서는 해당 작품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기술 분야는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비학습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위원회는 비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개발자가 AI 학습 후 데이터를 제외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행 저작권법을 통해 무단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AI가 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배제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할까요?

업계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익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나,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IV.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원저작물을 참조했는지(원저작물에 의존했는지)’와 ‘실질적 유사성(상당한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인간이 만든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기준대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AI에 적합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한국 법률 및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CCIA는 저작권 침해 분석 시 인간과 AI 시스템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침해는 행위 주체가 인간이든 AI든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2) AI 출력물이 인간이 만든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누가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a) AI 개발자(개발사 내부)
- b) AI를 훈련시킨 사람
- c)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AI를 사용한 사람

- d) AI 출력물을 복제, 배포, 출판 등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
- e) 기타

일반적으로, 책임은 저작권 침해적 결과물을 요청하고 이를 출판한 최종 사용자가 져야 하며, 모델이나 시스템, 이를 훈련·배포한 개발자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비디오 녹화기나 컴퓨터 등 다른 기술이 IP 침해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의 제공자 대신 그 기술을 사용하여 무단 복제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듯, AI 시스템을 악용한 최종 사용자의 행위가 침해 행위의 동인이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최종 사용자가 제공자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V. AI 출력물 표시 문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출력물과 인간 작품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과 AI 출력물(보호받지 않는 창작물)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 의무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1) AI가 생성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악 등 AI 생성 결과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불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계 관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의무적 표시 규정을 성급히 도입하기보다 기술 및 업계 표준의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업계 관행이 진화함에 따라 표시가 소비자에게 유용하고 기업에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떤 표시 방식이 최적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축적될 것입니다.

모든 AI 생성물, 특히 문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소비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CIA는 번역 AI 출력물에 일일이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분야별로 어떤 표시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기준(norms)이 발전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소비자의 기본 문의에 대해 AI가 생성한 응답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겠지만, 학생이 과제에서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를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검증 도구 적용 등 범위를 더 좁게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글로벌 모범사례는 소비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콘텐츠를 인지하도록 돕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은 아직 발전 중이므로, 어떤 의무적 표시 제도도 시급한, 특정 사례에 한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변형되었거나 생성된 콘텐츠가 텍스트, 오디오, 사진, 동영상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표시 의무를 둘 때는 완전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AI 도구를 통해 내용이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콘텐츠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AI 도구를 우연히 활용하거나 아주 사소한 변경에 그치는 경우와 같이, 콘텐츠에 실질적 변화를 주지 않는 사안에까지 표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앱 자체가 생성형 AI 앱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메타데이터에 이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력물 표시 의무가 없어도 될 것입니다.

2) AI 출력물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면,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할까요? (예: 사용한 AI 프로그램명, 인간이 작업한 부분, 프롬프트 횟수, 인간과 AI 협업 정도(인간 00% 등))

CCIA는 “인간과 AI 간 협업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AI 활용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가 인간에 의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AI에 의한 것인지를 수치로 환산하는 일이 여러 상황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AI의 사용 사례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협업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물 생성에 AI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정도의 포괄적 표시가 배포자, 사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더 실용적일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계산한 인간 vs. AI 기여도 비율은 정확하지 않고, 혼동만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표시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메타데이터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3) AI 출력물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면, 누가 표시 주체가 되어야 할까요? (예: AI 모델 개발자, AI 서비스 제공자, AI 사용자)

표시 의무는 AI 제공자와 사용자를 포함, 배포자가 공유해야 합니다. AI 모델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AI 생성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표시 의무는 해당 콘텐츠를 배포하는 소비자(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AI를 사용한 모든 콘텐츠 창작에 표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올까요? (예: 딥페이크 기술 활용 사례,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콘텐츠 등)

앞서 언급했듯이, 업계 관행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일괄적 표시 의무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일률적 기준을 도입하면 기술 및 사용사례 진화에 따라 그 기준이 부적합해져, 준수나 활용 모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공개 의무가 부과될 경우, 여러 AI 도구를 결합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나 완전한 생성형 AI가 아닌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세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환경에서 코드 자동완성 기능이나 이미지 편집기에서 콘텐츠 인식 채우기 기능처럼 AI 기술을 활용하지만 최종 결과물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AI 생성물’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정보 공개는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으며, 대다수 사용자는 이러한 표시를 대체로 무시하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생성형 AI 앱임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출력물 표시 의무는 필요 없으며, 만약 의무를 도입하더라도 메타데이터에 포함하는 방식을 허용해야 합니다.

5)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a) 과태료, 부담금 등의 행정적 조치
- b) 벌금 등의 형사적 제재
- c) 별도 제재 없이 선언적·주의적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로 해결 (예: 유튜브가 표시 규정 위반 창작자의 수익화를 제한하거나 관련 콘텐츠 삭제 등)
- d) 기타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표시 의무화는 시기상조입니다.

6) 출력물 표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누구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방식과, 이미지나 영상의 심미성을 훼손하지 않고 기술적 처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 중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까요?

CCIA는 특정 형태의 표시를 지지하지 않으며, 바로 이 질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식을 강제하기보다, 업계가 소비자 친화적이고 서비스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안 식별형 표시가 유용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삽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 한해 특정 표시 형식을 강제하면 AI 콘텐츠 창작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는 표시를 무시하거나, 혹은 AI 사용이 가진 예술적 잠재력이 시각적 라벨 때문에 훼손될 수 있습니다.

- a) 육안 식별 가능 표시 방법
- b)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기술적 처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방법
- c) 기타 방법 (원칙적으로 육안 식별 가능하나 필요시 기술적 처리 방법 적용 등)

VI. 출력물의 저작권 등록

현행 저작권법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I 생성 결과물에 인간이 수정, 추가, 편집, 배열 등을 통해 창작적 기여를 했을 경우, 그 기여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은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1) 위와 같은 AI 출력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은 적절한가요? 부적절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준은 충분히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간이 AI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 경우 “인간이 한 기여”에 대해, AI가 생성한 내용 중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적 표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이 실제로 표현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저작자가 작품 표현에 대한 적절한 창의적 통제를 행사하고 “실제로 형성”하는 한 최종 사용자에게 특정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AI 생성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기여에는 인간 저자가 AI의 출력물을 최종 작품으로 크게 변경하거나, 인간 저자가 생성 AI의 출력물에 대한 충분한 제어를 행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결과물을 요청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최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면, 인간의 추가적 창작 기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현행 제도가 부적절하다면, AI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4)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 등록 제도, 저작권법, 또는 등록 지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VII. 인간 창작 기여 없이 생성된 AI 출력물 보호 문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출력물 보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AI 출력물도 저작물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저작물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만 제공하거나 아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혀 없는 AI 출력물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결과물에 기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AI 알고리즘 또는 프로세스가 생산한 작품은 저작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AI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가 사람의 표현적 기여 없이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체적이거나 표현적인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합니다. AI 알고리즘이나 이를 구동하는 컴퓨터는 작품을 생성하기 위해 저작권이 부여하는 경제적 유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AI는 단시간에 방대한 수의 출력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방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AI 개발자 및 사용자들에게 소송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AI 출력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AI 출력물이 보호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3) 인간 개입 없는 AI 출력물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삼으려면, 인간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AI 출력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 a) AI 개발자(개발사 내부)
- b) AI를 훈련시킨 사람
- c)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AI 출력물을 만들어낸 사람
- d) AI 출력물을 복제, 배포, 출판 등 유사 행위를 한 사람
- e) 기타

AI가 단독으로 제작한 작품에 대한 보상과 저작권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바로 이러한 작품이 저작권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VIII. 인간 창작 기여와 AI 출력물 보호

현행법상 생성형 AI를 통해 창작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AI 출력물에 수정, 추가, 편집 등 창작적 기여를 할 경우, 해당 기여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작가는 작품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 저작물성을 판단할 때 창작적 기여 여부가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AI 출력물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 행위를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 AI 출력물에 인간 창작 기여를 인정한다면, AI 출력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a) AI 개발자(개발사 내부)
- b) AI를 훈련시킨 사람
- c) 프롬프트를 입력해 AI 출력물을 만든 사람

AI 모델이나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창작적 통제를 행사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인정이 주어져야 합니다. AI 개발자 등 다른 관련자들은 저작권(코드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보상 등 AI 라이프사이클의 다른 단계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나, 특정 AI 출력물에 초점을 맞출 때는 해당 AI를 활용하여 그 결과물을 만든 개인에게 인정이 돌아가야 합니다.

- d) AI 출력물을 복제, 배포, 출판 등 유사 행위를 한 사람
- e) 기타

2) 사용자가 생성형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를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아이디어로 봐야 할까요?

앞서 설명했듯, 단순히 AI 시스템에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3)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창작적 기여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창작적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지시/입력 내용과 양, 생성 횟수 등)

4) AI 출력물에 활용된 사용자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